

“현장중심 소통행정으로 넉넉하고 품위있는 복구 만들 것”

반환점 민선 8기
문인 복구청장

세계시장 개척 지역기업 육성
친환경도시·돌봄 서비스 확대
정부 혁신 유공평가 대통령상

“넉넉하고 품위 있는 행복한 복구로 만들겠습니다.”

문인 복구청장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아보며 주민들의 행복 체감도를 최대로 올리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문 청장은 최근 광주일보와 진행한 민선 8기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민선 7기에 이어 지난 2년은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걸어온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복구의 재정 강화를 위해 민선 7기부터 힘써온

문 청장의 넉넉한 복구 만들기는 민선 8기에도 계속됐다.

그 결과 국회,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광주 자치구 유일 5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왔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재정 강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문 청장은 지난해 동남아 시장 개척에 이어 올해 미국 해외 시장에서 중소기업(광·IT) 1000만 달러 계약 성과 달성에 힘썼다.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지역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문 청장의 청사진이다.

또 신속집행 10회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민선 7기에서부터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 656회 수상을 하며 2476억여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 편의 사업에 재투자해 왔다.

이는 다시 부메랑처럼 또 다른 성과로 돌아왔다. 지난해 정부 혁신 유공평가에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거리 조성과 복구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기초자치체 유일하게 수상한 대통령상이 그것이다.

문 청장은 2년 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



인 84.27%로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동분서주했다.

우선 복구를 생태 친화 도시로 만들어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등산 평두메 습지를 광주 최초 탐사르습지로 등록시켰으며 올리는 도로로 훼손·단절된 생태통로를 복원하는 시민의 숲길 사업에 착수하고 실시계획을 시작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 39년 된 현 복구청사의 단계별 청사 확충 계획을 수립해 지난 6월 착공식을 열고 1단계 공사에 돌입하며 오랜 숙제였던 노후·협소 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문 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활기찬 삶이 영위되는 건강한 사회, 주민 중심의 적극적 사회참여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고령 친화 정책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에 올해 1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 친화 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얻은 복구는 3대(여성, 아동, 노인)친화도시 반열에 올랐다.

노인과 장애인뿐 아니라 영유아, 아동, 한부모까지 복지 대상을 확대하고 재가 의료, 주거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해 복구 특화 돌봄모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문 청장의 구상이다.

문 청장은 인공지능(AI), 드론 등 4차산업 분

야에서도 복구가 한발 앞서서 나아가 한다고 밝혔다.

복구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9000억원 규모로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 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AI데이터센터가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단계 사업 추진까지 박차를 가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문 청장의 포부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발족한 4차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문 청장은 “지난 2년은 민생경제 침체와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도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왔던 시간”이라며 “매일 찾는 등산길, 현장·만남·소통의 날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반영해왔다. 앞으로도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 복구로 변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 kdi@kwangju.co.kr

‘경청 구청장실’ 등 민선 8기 광산구 정책 만족도 80% 넘어

시민 우선 정책·사업 ‘좋은 성적표’

광주시 광산구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선 8기 광산구가 추진한 역점 시책인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등의 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최근 실시한 구정 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광산뮤직ON페스티벌’, ‘대한민국 1호 도심 국가습지’, ‘황룡강생태길 30 조성’ 등 역점 시책에 대해 80%이상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지난 6월 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광산구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2357명 대상으로 온라인조사(PC, 모바일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마련한 정책과 사업이 ‘좋은 성적표’로 이어졌다는 게 광산구의 분석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직접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정에 반영하는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은 긍정 평가가 80.5%로 집계됐다.

광산구는 7월 중순 기준 이 정책을 통해 구정에 반영됐거나 검토 중인 주민 의견이 5051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대표 명품길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황룡강생태길30의 긍정 평가는 84.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사업은 송산근린공원부터 동곡 두물머리까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취임 1호 결재인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최근에는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저녁 시간 아파트 단지로 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12km, 약 30리를 문화·예술·생태가 어우러진 명품 길로 만드는 것으로, 건강, 여가에 관심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도(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20~30대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으며 79.5%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민이 같아하던 축제 취향을 확실히 ‘저격’한 기획과 운영 전략이 통했다고 광산구는 자랑했다.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한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로 광산구 지역 전체를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좋은 일자리 모험으로 만들

는 지속가능 일자리특구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9%에 달했다.

또 동을 마을정부로 격상시켜 시민이 주도해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상향식 자치분권의 모델이 될 동 미래발전계획은 81.8%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청장은 “시민입장에서 더 나은 길을 고민하고, 시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해 결국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와 만족도로 이어진 것 같다”며 “광산구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표준화된 모델이 되도록 시민과 함께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서구,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서구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구는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5000여 가가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서구는 건강관리 전문인력들을 현장에 파견해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관리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한다.

또 건강수칙 안내문, 부채, 쿨패치, 쿨스카프, 벨레기피체 등 폭염 대응 물품을 배부하고 경로당 등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안내한다.

서구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효 시 예방 수칙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하루 100여 건의 전화와 650 여 건의 문자를 통해 폭염, 온열질환 예방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구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검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허순석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남구 구립도서관, ‘여름방학 이색 독서교실’ 운영

광주시 남구 구립도서관 4곳에서 일제히 여름방학을 맞은 지역 초등학생들과 함께 여름 독서교실 프로그램 진행에 나선다.

남구는 문화정보 도서관과 푸른길 도서관에서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먼저 문화정보 도서관에서는 이 기간 ‘우리 가치(같이) 지켜요’라는 주제로, 책을 통해 생활 속 가치를 만나면서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청소년 도서관에서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초

등학교 2~4학년 학생 2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맛있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펼친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아이들의 오감 발달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그림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또래 아이와 요리를 만들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예정이다.

효천어울림 도서관에서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초등학교 3~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벌거벗은 세계사 사권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어머님들 강릉

제17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7.27(토)~8.4(일) / 9일간 /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문화관광축제 VISIT KOREA YEAR 2023-2024

장흥군